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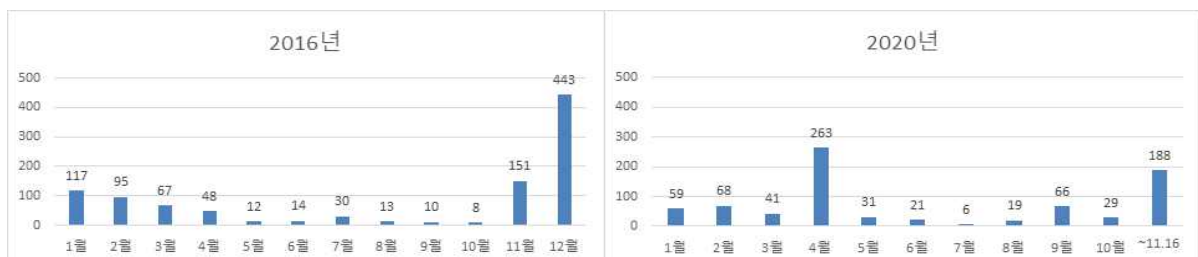
2020년 11월 18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과장 최명철(044-201-2511), 서기관 유재형(2515)  
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지방역과 과장 이기중(044-201-2551), 서기관 황성철(2555) /제공: 11월 18일(총 6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##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예찰·소독 등 강화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'농식품부')에 따르면 올해 10월 하순부터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, 국내 야생 조류에서도 항원이 검출되고 있다.
- 해외에서는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한 주간 총 50건(10개국\*, 11.17 22:00 기준)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세계동물보건기구(OIE)에 보고되었다.
  - \* 해당국가: 덴마크, 아일랜드, 독일, 영국, 일본, 이스라엘, 네덜란드, 러시아, 라오스, 카자흐스탄
- 올 해는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총 188건\*이 OIE에 보고되어 지난 10월 1달간 29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,
  - \* ('19.11.1~11.16) 1건, ('18.11.1~11.16) 8건, ('17.11.1~11.16) 25건, ('16.11.1~11.16) 48건
  - 올 해와 비슷한 발생양상을 보였던 '16년도와 비교해 볼 때, 12월까지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등 엄중한 시기이다.



○ 국내에서는 11월 17일 현재까지, 총 4건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천안(2건)·용인(1)·이천(1)의 철새도래지(야생조류)에서 발견되었다.

□ 농식품부는 전년보다 1개월 앞선 9월 1일부터 국내 철새도래지에 대한 집중 예찰·검사를 실시중이고, 현재까지 7,687건의 야생조류 분변 시료검사와 313건의 야생조류 포획검사 등 총 8,000건을 분석한 결과, 11건의 H5·H7형 AI 항원을 검출\*하였다.

\* 7건은 최종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, 현재 801건은 검사 중

<최근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현황(10월 이후)>

구분	발견장소(시료 채취일)	고병원성 여부(확진일)	혈청형
1	천안 봉강천(10.21)	고병원성(10.25)	H5N8
2	용인 청미천(10.24)	고병원성(10.28)	H5N8
3	군산 만경강(10.26)	저병원성(11.1)	H7N1·N2·N3·N8(믹스형)
4	양주 상패천(10.26)	저병원성(11.2)	H5N3
5	사천 사천만(11.2)	저병원성(11.9)	H5N3
6	아산 곡교천(11.4)	저병원성(11.10)	H5N3
7	부안 조류지(11.3)	저병원성(11.10)	H7N9
	부안 조류지(11.3)	최종 음성	
8	천안 병천천(11.3)	고병원성(11.10)	H5N8
	군산 만경강(11.4)	최종 음성	
	수원 서호(11.9)	최종 음성	
	의왕 왕송호수(11.9)	최종 음성	
	화성 황구지천(11.9)	최종 음성	
	정읍 동진강(11.9)	최종 음성	
9	이천 북하천(11.10)	고병원성(11.14)	H5N8
	강릉 남대천(11.11)	최종 음성	
10	사천 사천만(11.11)	검사중	H5 (N형은 검사중)
11	구미 낙동강(11.13)	저병원성(11.17)	H7N7

□ 농식품부는 H5 및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던 철새도래지 18곳\*(최종 음성확인 포함) 인근의 전업 가금농장에서 사육중인 가금류에 대한 임상예찰 및 검사를 실시하였으며,

\* 봉강천, 청미천, 만경강(2개소), 상패천, 사천만(2), 조류지(2), 병천천, 곡교천, 서호, 왕송호수, 황구지천, 동진강, 복하천, 남대천, 낙동강

○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개체나 특이사항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.

○ 또한 11월 17일, 전국 5,972호의 가금농장에 대해 전화예찰을 실시하였으며, 조류인플루엔자 의심개체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.

\* 대상농가: 산란계·종계·오리·메추리 전업농장은 2주 1회(타 축종은 월 1회)

\*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누계 198,410호에 대해 전화예찰 실시

□ 농식품부는 금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지역 일대 철새도래지(14개소)와 양쪽 3km 내 지역인 “AI 특별 관리지역(2개 지역\*)”에 대해서는 야생조류 분변 시료채취를 기존의 2배 수준으로 강화하여 예찰하고 있으며,

\* (1호 관리지역) 청미천, 안성천, 진위천, 봉강천, 병천천, 풍서천, 곡교천, 무심천, 보강천, 미호천

\* (2호 관리지역) 남한강(복하천 포함), 원주천, 섬강, 소양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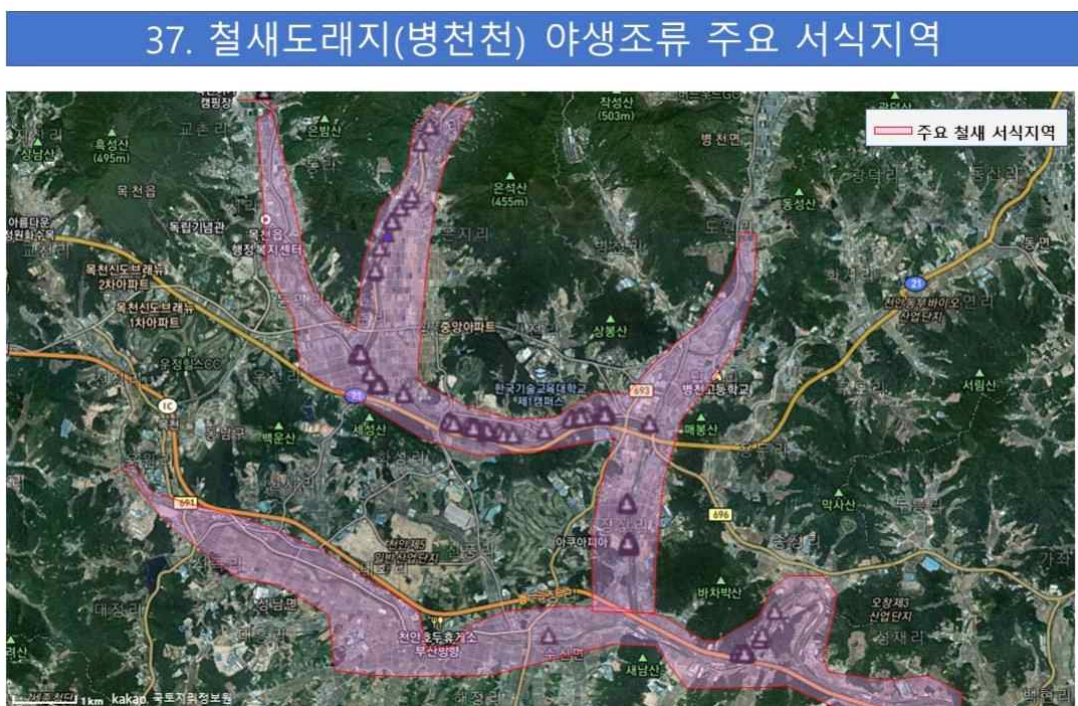
○ 14개 철새도래지 내에 108개소\*의 출입통제 지점(소형 주차장, 사람 출입구 등)을 설정하여 차단 띠와 안내판을 설치하였고, 지자체 담당관이 산책·낚시 금지 등 현지 지도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.

\* (1호 관리지역) 10개 철새도래지, 88개 출입통제 지점

\* (2호 관리지역) 4개 철새도래지, 20개 출입통제 지점

- 농식품부는 전국 철새도래지(103개소)에 대한 야생조류 서식지도(주요 관찰장소 및 서식범위)를 도래지 별로 제작(103개)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공유하고,
- 해당지역에 대한 집중소독과 시료 채취, 사람·차량 출입 통제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다.

<야생조류 서식지도 사례>



△ : 철새가 관찰된 지점

- 지자체들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
- 전라남도의 경우 도지사 주관으로 “AI·ASF 차단방역 실천 다짐대회\*(11.10)”를 개최, 관련기관·단체, 축산농가 등의 방역 의지를 결집하였다.

\* 200여명 참석(도지사, 검역본부장, 도의회 의장, 축협장, 계열업체, 생산자단체, 시군 부단체장, 가금·양돈농가 등), 차단방역 실천 결의문 낭독 등

- 또한 동절기 방역을 위한 예비비 24억여원을 확보, 철새도래지 일대와 가금농장 진입로 소독강화와 농장 대상 생석회·면역증강제·야생동물기피제 지원하고,
- 도 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(11개소) 출입구에 통제초소 설치 및 고압분무기 비치·운용 등 방역을 강화하였다.

○ 충청북도의 경우 도 차원에서 “고병원성 AI 긴급 주의보”를 발령(10.26)하였고,

- 농장·축산관계시설의 소독·방역실태 점검을 위한 ‘1517 기동 방역점검반’을 편성하여 현장점검 활동을 대폭 강화하였다.
- 또한 철새도래지 인근에 위치한 농장 중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장 115호에 대해 선제적인 구매·도태를 실시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.

□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“가금농장이 밀집해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산란계 밀집사육지역 등의 방역에 구멍이 뚫리면, 그 피해 규모가 견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”고 강조하며,

○ “농장관계자는 농장 내외부에 대한 소독과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을 철저히 하고, 외부인·차량(자차 포함) 등의 농장 출입 통제, 방역수칙 생활화 등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'20.10월 이후 야생조류 시항원(H5/H7) 검출 현황(11.17. 기준)

